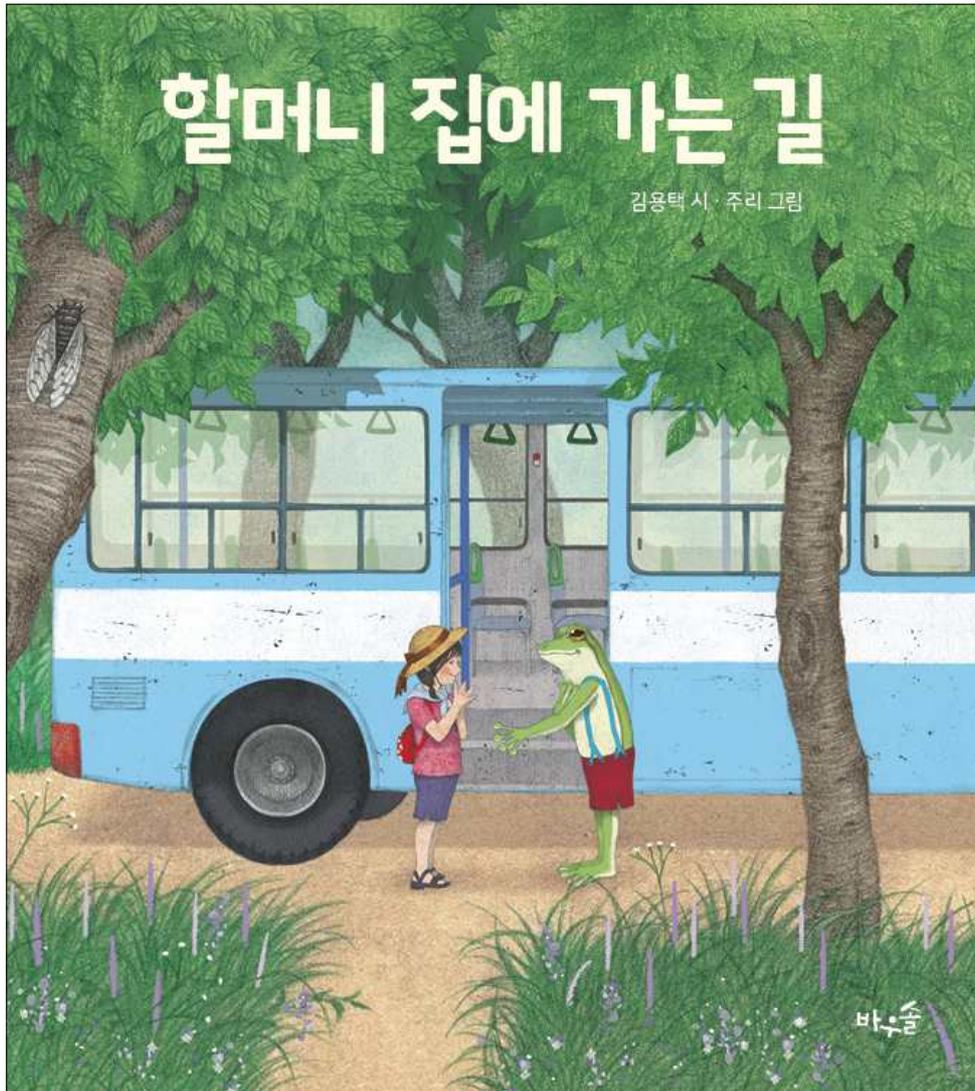


《할머니 집에 가는 길》 독서지도안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땅 최고 깊은 사랑이 흐르는 사계절 그림책!

- 작가_ 김용택 시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봄이면 산벚꽃이 하얗게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며 반깁니다. 가을이면 벼가 익어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들판을 덮습니다. 그 길 끝, 포근한 품으로 안아 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 주는 사람. 그런 할머니는 우리에게 자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주하는 아름다운 사계절 자연과 설렘, 할머니의 포근한 사랑을 담은 시 그림책입니다. 자연을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어 소박한 언어로 형상화하는 김용택 시인은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와 변함없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여과 없이 담았습니다. 리듬감 있는 문장과 자연을 오롯이 담은 환상적 그림은 독자에게 풍부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민들레꽃 피는 고샅길부터 염소 우는 길, 알밤 떨어지는 길, 하얀 눈 내리는 길까지. 설렘과 두려움으로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아이는 나비, 개구리, 허수아비, 두루미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한 발 한 발 길을 나아갑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조금씩 커갑니다. 독자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연 곳곳을 살펴보면서 물 흐르듯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을 깨우치고, 그 속에서의 삶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학년 바슬즐 <사람들>, <하루>, <약속>, <상상> 공통
2학년 바슬즐 <나>, <물건>, <기억>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5. 반갑게 인사해요
1학년 2학기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4. 감동을 나누어요
5. 생각을 키워요
2학년 1학기 국어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5.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4. 마음을 전해요

• 지도 요점 :

할머니 만나러 갈 생각에 아이는 전날부터 마음이 설렘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다닥다닥 아파트 가득한 도시를 떠나 꽃과 나무, 바람 가득한 시골로! 눈부시게 하얀 산벚꽃, 점점이 노랗게 피어 있는 민들레꽃. 어여쁜 꽃들이 할머니 집 가는 길을 밝혀 줍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발걸음은 왜 그리 가벼운 걸까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엔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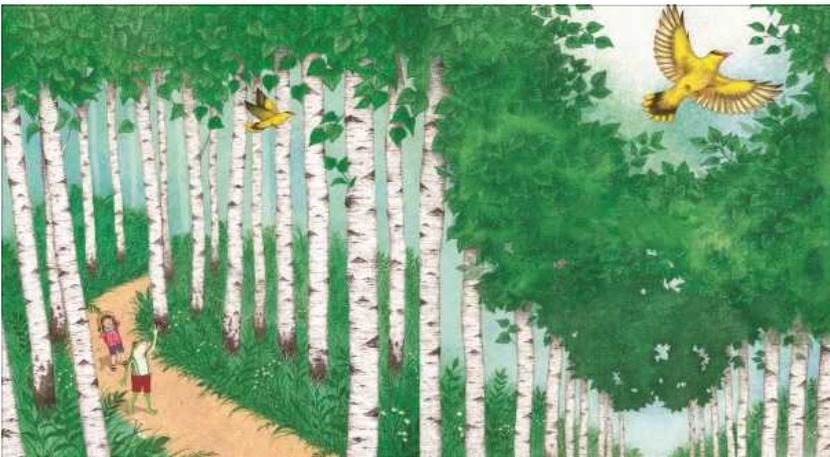
(1) 봄날,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어떤 꽃이 하얗게 피어 있나요?



- ① 산벚꽃
- ② 무궁화꽃
- ③ 장미꽃
- ④ 호박꽃

▶ -----

(2)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울며 반겨준 동물 친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매미
- ② 염소
- ③ 피콜새
- ④ 귀뚜라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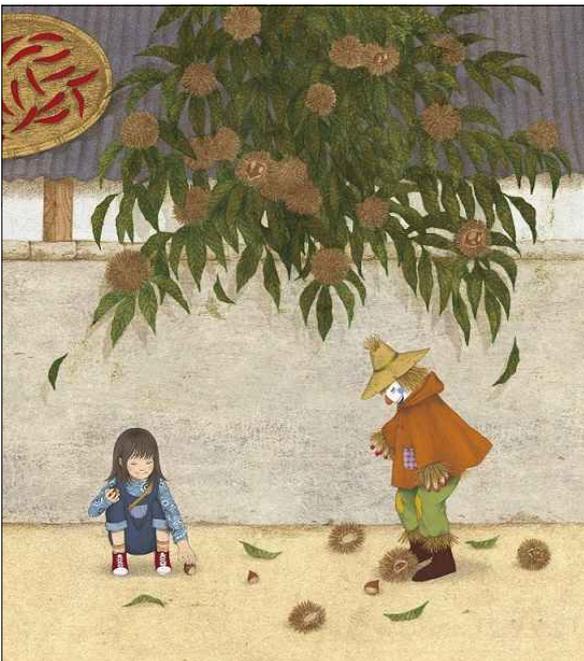
(3) 할머니 집 들어서면, “내 새끼 많이 컸구나.” 반기는 할머니에게 나는 무엇이 되나요?



- ① 장난꾸러기
- ② 심술꾸러기
- ③ 어여쁜 꽃
- ④ 잘생긴 나무



(4)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는 무엇이 툭툭 떨어지나요?



- ① 선물
- ② 알밤
- ③ 눈물
- ④ 빗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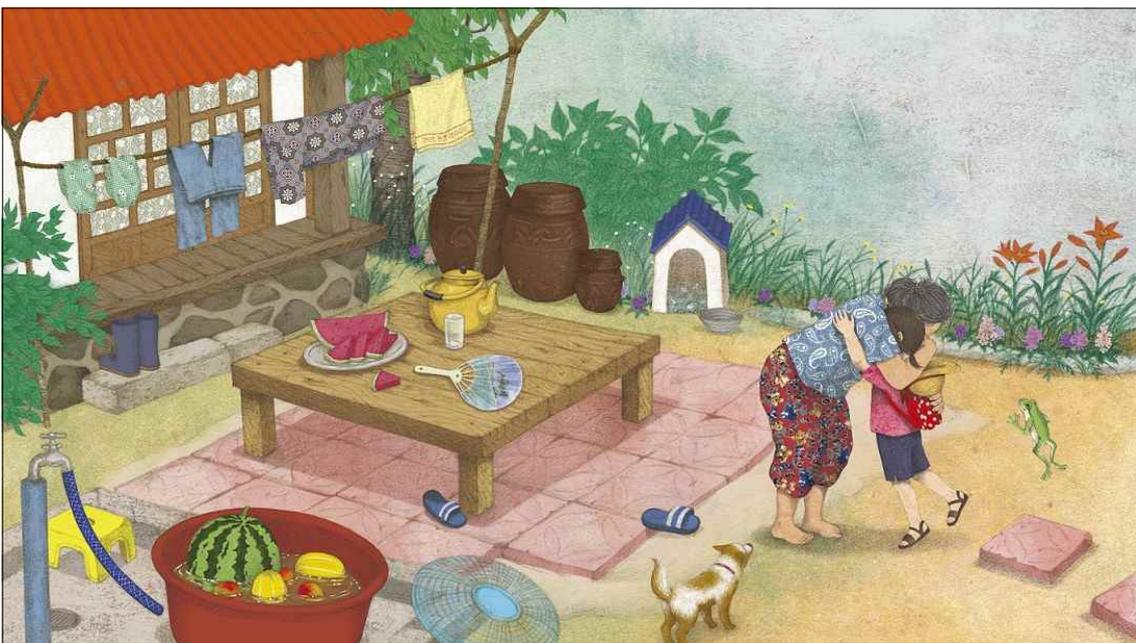


4. 확장활동

(1) 나비, 개구리, 허수아비, 두루미. 계절별 친구들이 있어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나요?



(2)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내어 주시는 할머니. 여러분은 언제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나요?



(3) 할머니 집 가는 길, 여러분은 어떤 자연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산벚꽃 | (2) ④ 귀뚜라미 | (3) ③ 어여쁜 꽃 | (4) ② 알밤

확장활동

- (1) 강충강충 뛰어 길을 잘 안내해 주는 토끼를 만나고 싶어요.
기다란 코를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코끼리를 만나고 싶어요. 등
- (2) 밥 먹을 때, 할머니는 내 밥 위에 고기를 가득 올려 주세요.
할머니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줄 때요. 등
- (3) 산마다 단풍물이 곱게 물든 길이 기억에 남아요.
집마다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등